

“위급한 상황 직감...구할 생각 밖에 없었다”



영산강 투신한 학생 구조한 해군 3함대 임경진 상사

생명 지키는 일 망설임 없이 나서 선행·시민정신 뒤편게 알려져 전남지방경찰청장 표창 수여

해군 부사관의 직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던 학생의 목숨을 구했다. 선행의 주인공은 해군 제3함대사령부 기지방호전대 소속 항만지원정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경진(44) 상사. 임 상사는 지난 18일 오후 아내와 함께

영산강 하구 삼호대교를 운전하며 지나가던 중 반대편 하구둑 난간에 학생 한 명이 신발을 벗고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학생의 모습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임 상사 부부는 재빨리 차량을 돌려 학생이 있던 장소로 향했다. 임 상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학생은 이미 난간을 넘어 영산강으로 투신한 후였다. 임 상사는 차에 있던 구명조끼를 입고 강으로 뛰어 들어 허우적거리는 학생을 구조해 119구조대와 영암경찰서에 인도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강으

로 뛰어들어 인명을 구조한 임 상사의 선행과 시민정신은 뒤편게 알려졌다.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24일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으며, 영암경찰서에서도 ‘우리동네 시민경찰’ 2호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임 상사는 “난간에 있는 학생의 모습을 보는 순간 위험을 감지했고, 구해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면서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자 시민의 한사람으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앞으로도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망설임 없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제일고, 철도공사와 지역발전 위한 자매결연



광주제일고와 최근 광주도시철도공사 금남로 5가역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제일고에 따르면 광주제일고와 금남로 5가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도모, 학생 참여 프로그램 제공, 도시철도 홍보 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광주제일고 측에 청소년 문화행사 초청, 찾아가는 안전 체험교육, 장학금 지급, 도시철도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금남로 5가역에서 문화지하철 정기 공연 관람, 역 구내 버스길 공연 및 전시회 개최, 일일 직업체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백기상 광주제일고 교장은 “광주도시철도는 광주제일고 학생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통학 수단인데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종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터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정읍 한영석씨, 전국 첫 누룩 분야 무형문화유산 명인 선정

‘누룩’ 제조기법 연구·개발

정읍 귀농인 한영석(51)씨가 전국 최초로 전통 누룩 분야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인으로 최종 선정됐다. 27일 정읍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사)한국무형문화예술교류협회는 전통 발효제인 ‘누룩’의 제조기법을 오랜 기간 연구·개발하고 계승 발전시켜 온 ‘한영석의 발효연구소’ 한영석 대표를 전통 발효 누룩 분야 명인으로 지정하고 최근 인증서를 교부했다. 한 대표는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인으로 활동하며 습득한 기능을 계승자에게 전승·보존하게 된다. 그는 수원에서 전통발효를 복원·연구를 진행하던 중 지난 2018년 정읍으로 귀농했다. 이후 100평(330㎡) 규모의 전통 발효 누룩 공장을 짓고 발효산업의 세계화에 나서고 있다. 한 대표는 정읍 귀농귀촌학교와 경기대학교, 한국기양주연구소 등에서 누룩 분야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 한국 궁중술빚기대회 대상을 수상했고, 2017년 누룩 성형기와 성형 방법을 특허출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통 발효 누룩 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전통적인 고유방식으로 10가지 종류의 누룩을 띄워내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조장과 식초공장, 교육장,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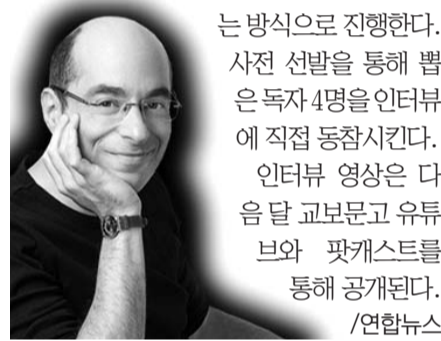
험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 대표는 “휠체어에 의존할 정도로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전통 발효 누룩을 접하고 건강을 되찾았다”며 “전통 발효제인 누룩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제조기법을 개발해 후손들에게 전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랜선으로 만나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교보문고 내일 화상 인터뷰

교보문고(대표 박영규)의 독서 클럽 낭만서점이 오는 29일 오후 5시 프랑스 인기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화상으로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한다. 교보문고 측은 베르베르가 신간 ‘기억’과 다음 달 출간을 앞둔 신작 ‘심판’에 얽힌 이야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27일 전했다. 낭만서점 진행자들이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독자들로부터 받은 질문이나 응원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전 선별을 통해 뽑은 독자 4명을 인터뷰에 직접 동참시킨다. 인터뷰 영상은 다음 달 교보문고 유튜브브와 팟캐스트를 통해 공개된다. /연합뉴스



적십자, 광주 체류 아프리카인 코로나 검사비용 지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홍석)가 최근 광주에 체류 중인 아프리카인 40명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했다. 검사 비용을 지원받은 아프리카인은 모두 40명이다. 한 사람당 12만원씩 480만원 전액을 광주시 민주인권과와 공동으로 지원했다. 이들 아프리카인은 올해 초 교육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발이 묶였다. 4개월여 만에 귀국 항공편을 마련했으나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필요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광주에 체류 중인 아프리카인을 관리하는 단체로부터 사정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이대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사무차장은 “국제적십자운동 7대 기본원칙에 따라 인종, 국적, 종교 구분 없이 지원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TV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앙코르 20주년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엄마가 바램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5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45 결혼계약	10 SBS 뉴스 30 특집 살맛 나는 오늘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그들이 그놈이다(재)		00 우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0 퀴즈 위의 아이들(재)	00 12 MBC 뉴스 20 따라라 따라라 똑똑맨 50 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목 보충설계
1	00 제48회 KBS배 전국육상대회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0 내고향 전파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팔도밥상			
3	00 TV쇼 진품명품(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품왕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재)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0 박원숙의 같이 삼시사(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테마스페셜 55 덕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20 공부가 머리?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20 오매! 전라도	00 불타는 청춘(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위험한 약속	20 찬란한 내 인생 55 MBC 뉴스데스크	00 최강 1교시(재)
8	30 기막힌 유산	30 노래가 좋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TV 동물농장 우린 같이 산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그들이 그놈이다	30 공부가 머리?	
10	00 시사토론 '10' 50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	40 옥탑방의 문제아들	50 PD수첩	20 여름특집 불타는 청춘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45 시사일반	
12	10 KBS결핵 다큐멘터리(재)	0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통합뉴스룸 ET(재) 55 안디무지크(재)	55 이 맛에 산다(재)	20 나이트 라인 50 네모세모(재)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18:00 생방송 특!톡! 보니 하니
07:15 출동! 슈퍼윙스	12:30 EBS 마스터	19:00 형사 가제트
07:30 뽀뽀뽀 뽀로로	13:00 EBS 다크프라임	19:30 최고대! 호기심딱지
07:45 로보가 폴리	13:50 미래교육 플러스	18:45 자이언트 팽TV
08:00 덩동맹 유치원	14:40 레이디버그	20:00 극한직업 스페셜
08:30 냉장고 나라, 코코몽	15:40 해오와 해오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50 뽀로로와 노래해오	<이것이 진짜 탐험
09:00 픽시	15:5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파라다이스 어드벤처, 타히티>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6:10 뽀뽀뽀 뽀로로(재)	21:30 한국기행
09:30 페파 피그	16:25 방귀대장 뽀뽀이(재)	<기다렸다, 여름 맛 2부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40 덩동맹 유치원(재)	소치기 형제의 뜨거운 여름>
10:30 한국기행	17:00 EBS 뉴스	21:50 EBS 다크프라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아동명명 귀여워2	22:45 건축탐구 - 집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로빈 후드	23:30 EBS 비즈니스 리뷰
12:00 EBS 정오뉴스	17:45 히어로 씨클	23:45 EBS 명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8일(음 6월 8일 壬申)

<p>36년생 허레나 명분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으니 실질을 우선 해야겠다. 48년생 화는 많고 길조는 적으니 변동은 피하지 마라. 60년생 한계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겠다. 72년생 균형 감각이 요청 된다. 84년생 당장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저변을 확보하는 기회를 맞이하리라. 96년생 대부분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위력이 저대하도다. 행운의 숫자 : 41, 70</p>	<p>42년생 일시적인 정체 현상으로 인해서 답답함을 면키 어렵겠다. 54년생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66년생 성공의 길은 험하고 험하다는 것을 알자. 78년생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수포로 돌아간다. 90년생 밤의 등을 타는 기세로 정진하게 된다. 02년생 치우친 주관은 위험을 자초할 수도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16, 94</p>
<p>37년생 구체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자. 49년생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 61년생 단순하게 보거나 확일적으로 대하지 말고 또 다른 관점에서 조망해 보자. 73년생 특정을 파악해야 처리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85년생 고난은 삶을 단련시켜 줄 것이다. 97년생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12, 98</p>	<p>31년생 잡다함을 정리하라. 43년생 대중 남침 일이 아니다. 55년생 최선이다. 67년생 구상은 좋으나 추진 에너지가 없어서 문제다. 79년생 아무런 이상도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91년생 취약점을 보완해 두지 않으면 연쇄적인 붕괴를 면할 길이 없다. 행운의 숫자 : 06, 99</p>
<p>38년생 한계 상황에 이르면서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이다. 50년생 활용한다면 가장 절실한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다. 62년생 너무 깊이 개인한다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74년생 편하게 지내도 되는 마당이다. 86년생 마음을 비우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98년생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0, 56</p>	<p>32년생 임시 상황이니 전혀 과대하지 마라. 44년생 필연적인 형국이니만큼 각오하고 임하라. 56년생 유사하게 반복될 것이니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리라. 68년생 소망하는 바를 향해 매진한다면 이루어지겠다. 80년생 상대의 말에 숨은 뜻까지 잘 파악해야만 하느니라. 92년생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판세라서 애매하리라. 행운의 숫자 : 00, 50</p>
<p>39년생 사회적 통념에 비추보자. 51년생 함께하는 과정에 서 많은 것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63년생 절제하라. 75년생 어중간해서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게 될 수 있다. 87년생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지는 않은 지 살펴 볼 일이다. 99년생 단독으로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행운의 숫자 : 08, 95</p>	<p>33년생 사방이 온통 오리무중이니 미혹에 빠지지 마라. 45년생 하루가 다르게 변할 수도 있다. 57년생 투명하게 추진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69년생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때다. 81년생 유동적이니 만큼 매사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93년생 참으로 힘들더라도 중도에서 그만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18, 80</p>
<p>40년생 강도 높게 대처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52년생 효율성의 시각에서 가닥을 잡는 것이 생산적이나. 64년생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76년생 일의 형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성국이라 할 것이다. 88년생 그대로 뒤야지 번복한다면 손해수를 부를 뿐이다. 00년생 같이 상거울 수도 있음을 알자. 행운의 숫자 : 35, 63</p>	<p>34년생 흥한 것은 많고 길한 것은 적어 보인다. 46년생 유능한 이들과 함께 길사를 도모할 수 있겠다. 58년생 연쇄적인 효과를 보게 되면서 적응력이 커진다. 70년생 가까운 이로 부터 세이가고 있다. 82년생 진행 되어가던 일이 미루어 지라. 94년생 조금의 편의를 도모하다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5, 53</p>
<p>41년생 관점의 한계가 파격적인 기회의 수용을 저해할 수 있다. 53년생 중차대한 판국의 마당이니 빈틈이 없어야겠다. 65년생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임해야 속이 편할 것이다. 77년생 글라서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89년생 현재의 시점에서 빈틈을 보인다면 치명적이나. 01년생 모순점이 보이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2, 82</p>	<p>35년생 꾸준함이 요구되는 때이다. 47년생 현재,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59년생 풍요로운 재물을 부르는 요인이 된다. 71년생 지난날의 영광을 회복하는 운세로 볼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되는 단계이다. 83년생 처음의 것이 가장 나으니 그것을 택하라. 95년생 기회 잡적하고도 남음이 있다. 행운의 숫자 : 11, 55</p>